

스페인, 중남미 관련 국내 단행본 출간 추이 분석

서경석(대구가톨릭대)*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
- III. 연구물 분석
- IV. 결론

I. 서론

스페인 중남미 지역에 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기반은 사실상 1955년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서반아어과가 창설되면서부터 구축되었다고 보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중남미 지역의 연구는 그 연구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그때그때 일시적인 필요성에만 의존해 온 감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상대국의 문화, 역사 등의 기본적인 토대 위에 정치, 경제 등의 총체적인 연구와 출판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국가적 상황이 점점 변해감에 따라 30여 개에 달하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다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경제는 물론 문화, 사회, 역사 및 언어와 문학 분야에까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 Kyung-Suk Suh(Universidad Católica de Daegu, Departamento del español, suhahn@unitel.co.kr), "El análisis de la publicación de los libros sobre América Latina y España en Corea".

정도로 성장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경제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협조자들로서 상대방 국가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심도 있는 교류와 상호관계가 필요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에 상응해서 비록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점차 스페인 중남미 각국에 관한 연구 출판물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였고 200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그 수효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건국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스페인 중남미 지역에 관한 연구성과 및 그 흐름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관련 단행본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단행본이 출판되어 왔으며, 어떤 시기에 어떤 분야가, 또는 어떤 시기에 어떤 국가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는가 등을 역사적으로 정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연구가 유도되는 분야 중 연구가 아예 전무하다거나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고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한계점을, 3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

II.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페인 및 중남미 지역과 연관된 단행본의 국내 출판 현황을 연도별, 주제별, 대상 국가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 출판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래의 연구출판 방향을 제시하고, 부수적인 성과물로 관련된 단행본 자료들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하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목록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선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기본적으로 건국 이후에서

2005년 3월까지의 국내에서 발행된 스페인 중남미 지역관련 단행본으로 정했다. 수집 방법으로는 오늘날 모든 것이 인터넷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통해서 각 기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했다. 우선적으로 국회도서관,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 국립중앙 도서관 등을 통했으며, 이차적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등의 국내 주요 서점의 인터넷망을 검색하였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각 분야와 관련된 연구서적을 참고하였다. 이미 일정 부분이 최윤국(1995)를 통해서 수집되었지만 당시의 환경에서 제약이 많았고 데이터베이스상의 항목 분류에 오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재확인 하였으며, 물론 2005년까지 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였다.

정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엑세스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접근을 하게 하는 이차적인 목표를 실행하게 된다.

개별 자료는 출판년도와 제목, 학문분야, 저자, 출판사와 함께 관련국가 등으로 분류되어 목록이 작성되었다. 수집된 단행본에는 일반 저서 및 번역서가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소규모 책자들도 포함된다. 또한 자료 수집원인 기존자료 소장기관의 기초 분류를 가능한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오류만을 제거하고 입력했음을 밝혀 둔다. 단순한 자료수집 및 나열에서 벗어나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자료분석을 위한 분류항목인 학문분야는 구체적으로 어학, 문학, 언어교육, 경제무역, 정치, 문화사회, 역사지리, 관광, 과학기술, 기타 등의 10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관련국가에는 스페인 및 중남미 국가 28국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가 표시 안 된 자료는 중남미로 별도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대별/분야별 분류와 함께 국가별/시대별, 국가별/분야별 등으로 구별하여 통계치를 얻어 자료를 분석하게 되었다.

II.2. 연구한계

스페인 중남미 지역의 연구는 보다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 출판물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중복 연구에 의한 연구 역량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서 누락된 연구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이외에도 연구자 또는 출판자 등 연구 분야에 따른 특성 전문 인력을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관계연구 지원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야별 구분은 편의상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단행본이 한 분야에 해당되게 하였다. 그러나 단행본의 성격상 중간적일 경우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설정한 분야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역시 한계점으로 이것 또한 필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국가의 분류에서는 29개 국가를 표시하되 특정 국가 없이 중남미로만 표기된 단행본을 위해 중남미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제목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 국가 이상을 그대로 표시하여 국가의 총 수효는 단행본의 총수를 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단행본의 제목을 가능하면 한자와 영문 표기를 한글로 옮겨 표시하였으나 책 제목에서 영문을 의도적으로 표기했거나 옮겨 적기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대로 표기했음을 밝힌다. 출판사나 저자의 경우에는 빈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정보처리 기관에서 밝히지 않았으며 재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단행본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발행이나 출판사가 바뀌어 발행년도가 달리 나타난 경우, 자료 출원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중복하여 기록했다. 특히 작업과정에서 기본적으로 DB화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회 전자도서관이나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국립 중앙도서관, 교보문고, 여러 대학 도서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실존하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DB 망에 포착되지 않은 출판물이 있으며, 역시 기존 DB 망에서 갖고 있는 자료의 오류들을 완전히 수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작업과정에서의 본인의 실수 역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 이후에도 보다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충할 것이다.¹⁾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를 통해서 지역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물 분석

본 연구는 건국이후부터 2005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스페인 중남미 관련 단행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연구되고 있는 다른 대상물²⁾과 마찬가지로 최윤국(1995; 2003)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자료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 중 발행된 단행본, 즉 조사된 단행본은 2164권으로 이는 스페인 중남미 관련 모든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포함한 총 연구 간행물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단행본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은 어느 것보다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총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문학으로 646권으로 전체의 29.9%에 해당하고 이어서 경제 무역 417권(19.3%), 문화사회 407권(18.8%), 언어교육 251권(11.6%), 정치 152권(7.0%) 순으로, 문학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스페인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는 정치보다는 경제부분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사회 분야 역시

1)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상에 올려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료의 수정과 첨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 학술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은 별도로 박영미와 김현식에 의해 연구되었다.

최근 들어 많이 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최소 발행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로 중남미 지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이 아니란 점에서 관련 단행본이 적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어학부분이 순수 언어학분야를 지시하는 반면 언어교육 부분은 교육용 교재 등의 모든 언어관련 자료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표 1> 단행본 분야별 총괄통계

	어학	문학	언어 교육	경제 무역	정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관광	과학 기술	기타	계
단행 본수	74	646	251	417	152	63	407	90	13	51	2164
%	3.4	29.9	11.6	19.3	7.0	2.9	18.8	4.2	0.6	2.4	100

Ⅲ.1. 시대별 분야별 발간 추이

스페인, 중남미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며 그 수효도 무척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발간물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쉽게 증명된다. 국내에서 발행된 단행본의 효시는 1948년도에 발행된 법무부의 『서서 형법전, 서반아 형법전』으로 추정된다. 사실 일제시대에 국내에서 발행되었어도 일본어로 발행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페인 중남미에 관한 국내의 첫 단행본을 추정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국어를 중심으로 볼 때 단행본의 효시를 이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³⁾.

이어서 법무자료 및 외무부에서 중남미 대상국별 업무 참고자료들

3)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료정보가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서에서 저자관련 부분에서는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포함시킨 것들 중에서 1924년도의 심미론과 1925의 세계동화대계, 1927의 세계희곡전집, 1931의 세계현상대관 등이 있으나 한국어 단행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기서는 효시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 발행되면서 그 수효는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이것들은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실제적인 교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외 정책수립을 위한 단순한 정보수집 단계에서 출발함을 볼 수 있다.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면 1945-50년대에 3권이 발행되었으며 1951-55(4권), 1956-60(15권), 1961-65(16권), 1966-70(24권), 1971-75(60권)으로 년 평균으로 보아 초기 한 두권에서 기껏해야 10권을 넘지 못하던 것이 1976년 이후는 백단위로 급증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86-90년대와 1991-95년대에서 300권대로 증가하며, 1996-2000년대와 2001-05년대에서는 4백권대에까지 이르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60년대에 들면서 문학과 문화사회, 경제무역의 분야에서도 단행본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60년대까지의 단행본이 모두 합쳐 70권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면서는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1971-75에서만 60권 이상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38.5%가 문학 분야이며 30%가 경제무역 분야인데 이런 문학과 경제 분야로의 비중은 2005년도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게 나타난다. 70년대 후반에는 경제분야가 거의 40%에 도달하며, 문화사회 분야도 15%까지 오르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예술이나 문화 등을 포함하는 문화사회 분야와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관광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이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는 이유를 생각하자면, 스페인과 중남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10명⁴⁾이나 배출할 정도로 문학분야가 매우 강한 나라들로 수상자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문학가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그들의 주요 문학작품의 소개와 번역이 80년대부터 증가해 분야별 최고 발행 분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스페인, 중남미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는 호세 에체가라이(1904, 스페인), 하신토 베나벤테(1922, 스페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1945, 칠레), 후안 라몬 히메네스(1956, 스페인),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1967, 과테말라), 파블로 네루다(1971, 칠레), 비센테 알레이산드레(1977, 스페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1982, 콜롬비아), 카밀로 호세 셀라(1989, 스페인), 옥타비오 파스(1990, 멕시코) 등이 있다.

1980년대에 들면서 언어교육 분야의 단행본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 스페인 중남미 관련 학과 및 대학원들이 1980년대 초부터 설립되면서⁵⁾ 기초 언어 교재가 필요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문적 연구인 어학분야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언어교육용 단행본의 출판이 많아진 이유로는 1980년대에 유학등을 거쳐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교육용 교재를 발행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⁶⁾

5) 국내 스페인·중남미 교육 관련 대학(개설연도, 전공학과명)으로는 경희대(1981, 스페인어전공), 고려대(1983, 서어서문학전공), 단국대(1983, 스페인어전공), 대구가톨릭대(1981, 스페인어전공), 덕성여대(1992, 스페인어전공), 배재대(1992, 스페인어문학(중남미)전공), 부산외국어대(1983, 스페인어과), 서울대(1984, 서어서문학과), 신문대(1997, 스페인중남미전공), 울산대(1989,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 전북대(1987, 스페인중남미어문학전공), 조선대(1981, 스페인어과), 한국외국어대(1955/1980, 스페인어과), 한서대(국제관계학과 중남미지역전공), 경희대(국제경영대학 중남미지역학전공) 등이 있으며 대학원(전공과정명)으로는 경희대(아시아태평양국제대학원, 일반대학원), 고려대(일반대학원), 단국대(일반대학원), 대구가톨릭대(일반대학원), 서울대(일반대학원, 국제지역연구프로그램), 신문대(통역대학원), 전북대(교육대학원), 조선대(일반대학원), 한국외대(일반대학원, 통역대학원, 교육대학원, 세계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이 있다.

6) 스페인, 중남미에서의 국별 연대별 박사학위 취득 현황

국가/연도	1970-75	1981-85	1986-90	1991-95	1996-2000	2001-05	계
스페인	2	1	11	32	34	26	106
포르투갈					1		1
멕시코			1	8	14	4	27
브라질				2	3	3	8
콜롬비아				7			7
아르헨티나						7	7
파라과이					7		7
계	2	1	12	49	59	40	163

<표 2> 단행본의 시대별 분야별 발간 추이

	어학		문학		언어/교육		경제/무역		정치		역사/지리		문화/사회		관광		과학/기술		기타		계		
		%		%		%		%		%		%		%		%		%		%		%	
-1944			3										3	0.7							6	0.3	
1945-1950									3	2.0											3	0.1	
1951-1955							1	0.2	1	0.7	1	1.6			1	1.1					4	0.2	
1956-1960			3	0.5			2	0.5												10	19.6	15	0.7
1961-1965	1	1.4	7	1.1			2	0.5	3	2.0			3	0.7								16	0.7
1966-1970			7	1.1			8	1.9	4	2.6			8	2.0						1	2.0	28	1.3
1971-1975			23	3.6	5	2.0	18	4.3	9	5.9			3	0.7			1	7.7	1	2.0	60	2.8	
1976-1980	4	5.4	39	6.0	16	6.4	73	17.5	10	6.6	4	6.3	30	7.4	6	6.7	1	7.7	10	19.6	193	8.9	
1981-1985	3	4.1	61	9.4	20	8.0	49	11.8	17	11.2	8	12.7	18	4.4	11	12.2	2	15.4	2	3.9	191	8.8	
1986-1990	12	16.2	119	18.4	53	21.1	30	7.2	29	19.1	11	17.5	56	13.8	14	15.6	3	23.1	5	9.8	332	15.3	
1991-1995	9	12.2	142	22.0	35	13.9	59	14.1	18	11.8	5	7.9	36	8.8	23	25.6	1	7.7	4	8.8	332	15.3	
1996-2000	13	17.6	122	18.9	59	23.5	126	30.2	33	21.7	16	25.4	96	23.6	12	13.3	4	30.8	18	35.3	499	23.1	
2001-2005	32	43.2	120	18.6	63	25.1	49	11.8	25	16.4	18	28.6	154	37.8	23	25.6	1	7.7			485	22.4	
총계	74	3.4	646	29.9	251	11.6	417	19.3	152	7.0	63	2.9	407	18.8	90	4.2	13	0.6	51	2.4	2164	100	

전체적으로 보아 정치와 경제무역 분야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일부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문화사회 분야가 2000-2005년대에서 154권으로 가장 많은 분야가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사지리,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점점 많은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소원했던 한국과 스페인 중남미간의 관계가 다양화하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단행본의 분야별 통계치를 전체적으로 볼 때 문학분야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 경제무역, 문화사회, 교육, 정치 등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스페인어 교육에서 주로 이용되거나 노벨상 수상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문학 작품의 소개와 번역에 해당하는 문학분야를 제외하면 아직도 많은 양이 경제무역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과 중남미간의 현실적인 교류는 사실상 경제 무역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무역도 장기적으로는 역사나 문화의 이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여 간접적으로, 그러나 심층적으로 스페인 중남미를 이해하고 접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2. 국가별 분야별 발간 추이

조사 자료를 국별로 분류해 보면 개별국가로는 스페인이 38.0%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개별국가가 아닌 중남미란 항목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단행본이 개별국가가 아닌 중남미로 다루어진 것은 단행본이 어느 특정국가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국가로서 나타나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가 13.7%로 단연 앞서고 있으며 이어 브라질(4.4%), 칠레(3.5%), 아르헨티나(3.1%), 콜롬비아(3.0%), 페루(2.4%), 쿠바(2.1%) 순이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듯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앞서는 멕시코는 306권으로 뒤이은 브라질보다 3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지리적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미주 시장을 향한 한국의 공장지대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인 티후아나나 멕시코칼리 등에 두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니카라과, 바하마, 수리남, 아이티,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의 국가는 물론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등에 관한 단행본은 10권이 넘지 않는데, 이것들도 외무부나 경제관련 기관이

기본적인 정보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차원에서의 연구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중남미 전체에 관한 단행본이 24.7%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특정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중남미를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 의미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로 각각 인식되기보다는 중남미라는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지역적, 국가적 편중현상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국가 연구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단행본의 국가별 분야별 발간 추이

	어학	문학	언어/ 교육	경제/ 무역	정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관광	과학/ 기술	기타	계	
												%
가이아나												
과테말라		4		6	1		2				13	0.6
그레나다												
니카라과		1			8					2	11	0.5
도미니카		1		4						1	6	0.3
멕시코		51		112	21	4	85	23	5	5	306	13.7
바베이도스												
바하마				1							1	0.1
베네수엘라		4		10	2					2	18	0.8
볼리비아		2		5			1				8	0.4
브라질	1	25	14	21	8		25		3	2	99	4.4
수리남				1							1	0.1
스페인	73	325	236	17	25	17	128	20	2	7	850	38.0
아르헨티나		35		15	3	1	13	1	1	1	70	3.1
아이티				2						1	3	0.1
에콰도르				3			1				4	0.2

엘살바도르		2		3		1				2	8	0.4
온두라스				2			1			1	4	0.2
우루과이		2		3			1			1	7	0.3
자메이카				2							2	0.1
칠레		36	1	28	6	1	6				78	3.5
코스타리카				2	1					1	4	0.2
콜롬비아		57		7	1		1				66	3.0
쿠바		10		2	15	1	17	1			46	2.1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1			1	2	0.1
파나마				8			3			1	12	0.5
파라과이		1		4			1			1	7	0.3
페루		19		5	3	5	17	2		2	53	2.4
푸에르토리코				1			3				4	0.2
소 계	74	575	251	264	94	30	306	47	11	31	1683	
중남미		82		185	64	35	108	52	3	24	553	24.7
총 계	74	657	251	449	158	65	414	99	14	55	2236	

각국과 관련된 분야별 사항을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야별 구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인 경제무역 부분에서는 관련 단행본 총 449권 중 중남미가 41.2%(185/449), 멕시코가 24.9%(112/449)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스페인은 3.8%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이 칠레(6.2%)나 브라질(4.7%) 등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스페인이 주요 경제무역 대상이 아닌 반면 한국과 중남미와는 경제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각 국가별 단행본들 가운데 경제무역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제무역 부분의 단행본의 비중은 멕시코가 36.6%(112/306), 칠레가 35.9%(28/78)를 차지하고, 중남미는 33.5%(185/553), 브라질이 21.2%(21/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은 2%(17/850)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관련 단행본을 한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역시 경제무역 분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국가내에서도 작은 나라일 수록 경제관련 단행본의 수효는 비록 적지만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⁷⁾.

가장 많은 분야인 문학 분야에서는 단행본 수가 가장 많은 스페인(325, 38.2%)을 비롯해서 콜롬비아(57, 86.4%), 칠레(36, 46.2%), 아르헨티나(35, 50%) 등은 문학이 전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으며, 중남미(82, 14.8%), 멕시코(51, 16.7%), 브라질(25, 25.3%) 등에서는 문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스페인의 경우를 관찰해 보면 문학뿐 아니라 언어교육 부분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 부분은 스페인어 교재를 모두 스페인으로, 또 포르투갈어 교재는 브라질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⁸⁾. 또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광 내지 문화부분의 단행본 역시 스페인과 중남미로 양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실상 스페인어권이 스페인과 중남미, 두 지역으로 나뉘어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단행본을 관찰하면 중남미는 국가의 수만 많을 뿐 앞서 언급한 경제무역과 언어교육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는 거의 양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멕시코와 중남미 그리고 스페인에서만 단행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외의 많은 나라의 구체적인 관광자료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출판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쿠바(15, 32.6%)와 니카라과(72.7%)가 정치분야에서 그 수치가 높은 반면, 칠레는 78건중 36건이 문학(46.2%)이고 28건이 경제무역(35.9%)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7) 수리남(100%, 1/1), 바하마(100%, 1/1), 자메이카(100%, 2/2), 아이티(67%, 2/3), 에콰도르(75%, 3/4), 온두라스(50%, 2/4), 도미니카(67%, 4/6), 코스타리카(50%, 2/4), 볼리비아(62.5%, 5/8), 우루과이(42.9%, 3/7), 파라과이(44.4%, 4/9), 과테말라(46.2%, 6/13), 파나마(66.7%, 8/12), 엘살바도르(37.5%, 3/8)

8) 사실상 스페인어 교재는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 교재도 최근에는 상당수가 브라질어 교재란 이름으로 출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FTA와 관련된 경제 무역분야에서 최근에 증가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소국가라 할지라도 문학의 분야에서는 제법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쿠바, 칠레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볼리비아,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비록 적은 수효이지만 문학이 경제무역 분야와 함께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갖고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페루의 경우는 문학과 함께 문화사회의 주제로 된 단행본도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페루가 고대 잉카문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잉카문명을 다루는 많은 출판물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Ⅲ.3. 국별 시대별 발간 추이

시대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초기의 자료들이 대부분 스페인과 관련된 자료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남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70년대 이후에 관련 서적이 집중되어 나타나며 중남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단행본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중남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스페인 하나의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20여 개국이 넘는 중남미와의 경제적 관계가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주어 관련 연구 책자가 비교적 많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멕시코는 1976년 이후부터 관련서적이 급증함을 보여주며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1986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1991년 이후에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칠레의 경우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물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을 토대로 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내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 스페인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스페인어 교재를 모두 스페인에 해당시켰기 때문이며, 이 교재들의 발행은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의 문화사회 부분 역시 성장세에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

중남미의 경우 1980년대까지 주로 경제무역 분야가 단행본의 주종을 이루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무역 분야와 함께 문학과 문화사회 부분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의 수집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예술이나 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와 문학 등의 출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단행본의 국별 시대별 발간 추이

	-	1945	1951	1956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계	%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가이아나															
과테말라						1	2		2	1	1	5	1	13	0.6
그레나다															
니카라과				1				2		7	1			11	0.5
도미니카				1				1	1	1		2		6	0.3
멕시코			1	1		6	6	34	26	41	57	91	43	306	13.7
바베이도스															
바하마								1						1	0.1
베네수엘라				1		1	1	1	3	1	3	7		18	0.8
볼리비아								3	1	2		2		8	0.4
브라질					1	2	2	2	5	19	12	25	31	99	4.4
수리남									1					1	0.1
스페인	5	3	1	3	8	6	25	57	56	147	135	175	229	850	38.0
아르헨티나				1		1		2	6	7	18	21	14	70	3.1
아이티				1				1			1			3	0.1
에콰도르									1	1		2		4	0.2
엘살바도르				1				2	1	2	1	1		8	0.4
온두라스				1					1		1	1		4	0.2
우루과이									1	1		5		7	0.3
자메이카										1	1			2	0.1
칠레							2	3	2	5	15	28	23	78	3.5
코스타리카				1						2		1		4	0.2
콜롬비아								4	17	12	15	14	4	66	3.0

쿠바					2				4	8	1	7	24	46	2.1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1				1		2	0.1
파나마				1					2	2		6	1	12	0.5
파라과이				1		2			1		1	2		7	0.3
페루				1				1	5	4	7	14	21	53	2.4
푸에르토리코					1		1				1			4	0.2
소 계															
중남미	2		2	3	4	9	23	82	65	78	87	98	100	553	24.7
총 계	7	3	4	18	16	28	62	197	201	343	357	509	491	2236	
%	0.3	0.1	0.2	0.3	0.7	1.3	2.8	8.8	9.0	15.3	16.0	22.8	22.0		100

IV. 결론

국제관계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상대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해 올바르고 심도 있는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와 정치 분야 등만의 단순한 교류와 협력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스페인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 효자시장으로, 특히 스페인은 국내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 EU 공동체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이 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출판은 그 영역에서 과거와 점차 다르게 다양화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초기의 중남미 경제분야와 스페인의 어문학 중심에서 언어교육, 문화 및 역사,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분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보면 스페인 중남미에 관련된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문학분야이며 이어 경제무역, 문화사회 언어교육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대상국은 스페인이 가장 많고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순으로, 스페인은 문학과 문화사회, 언어교육 분야가 강세인 반면 중남미와 멕시코는 경제 무역과 문화사

회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대별 흐름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 30여 개국에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국가에 많은 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는 이러한 편중현상이 해소되어 다양하고 폭넓은 국가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출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스페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역량을 분야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끔 기초연구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시대 분야별 연구 출판성향의 추이 분석을 통해 각 지역에 대한 접근방법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 내지 민간 차원에서 각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증진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작업된 데이터베이스 역시 학술적 자료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No sería exageración decir que la base del estudio de áreas de España y América Latina en Corea se formó con la fundación del departamento del español en la Universidad Hankook de Estudios Extranjeros hace cincuenta años. A pesar de esto, el estudio sobre estas áreas ha sido insuficiente por falta de infraestructura de investigación y por la indiferencia pública, y se manifiesta que los estudios se han concentrado en unos países determinados o en unas secciones determinadas como la promoción de exportación en aspecto comercial. Ahora, enfrentando a la globalización que une al mundo tan rápido, sentimos más necesidad del entendimiento y el intercambio más profundo hacia la América Latina y España. Ante esto, en este estudio, recogemos los datos de los libros publicados relacionados con esas áreas desde el establecimiento de Corea hasta el marzo del año 2005 y

observamos las tendencias en el estudio sobre esas zonas y la trayectoria de las investigaciones que se han hecho en Corea durante ese tiempo. Por el análisis de los datos que sacamos de aquí, creemos que este estudio puede ayudar a saber en qué parte de la sociedad necesitamos más contacto con la América Latina y España y cómo tenemos que acercarnos a estos países que ya estamos juntos en la globalización.

Key Words: Libros sobre la América Latina y España publicados en Corea, Tendencia de estudios de la América Latina y España en Corea, Base de datos de la bibliografía de estudios de la América Latina y España en Corea / 한국에서 발행된 중남미 스페인 관련서적, 한국에서의 스페인 중남미 연구 경향, 한국에서의 스페인 중남미 관련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화

논문투고일자: 2005. 10. 14

심사완료일자: 2005. 10. 31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강태진(2002), 「한국에 소개된 스페인어권 문학관련 번역상황-1960년에서 2002년 3월까지-」, 서어서문연구, No. 24, 한국서어서문학회, pp. 101-127.
- 최윤국(1994), 「한국의 외국 지역학 연구에 관한 자료분석 -우리말로 발간된 스페인·중남미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학연구, No. 7, 효성여자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pp. 453-469.
- 최윤국(1995), 『한국에서 발간된 스페인·중남미 관련 문헌 목록집』, 한국문화사.
- 최윤국(2003), 「한국의 스페인·중남미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서어서문연구, No. 28, pp. 733-753.
-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지역학연구회편(1996),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서비스: <http://www.knowledge.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서울대학교도서관: <http://library.snu.ac.kr>
- 서울문고: <http://www.bandibook.com>
-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 한국외국어대학교도서관: <http://webib.hufs.ac.kr>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yes24: <http://www.yes24.com>